

직장경기부 재정비 마무리 “체전 담금질”

제주도청 제주·서귀포시청 선수 영입·재계약 등 완료
레슬링 국대 이민호·태권도 김효혁·접영 안세현 확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등 도내 3곳 직장운동경기부가 재정비를 마치고 올해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제패를 위한 담금질을 시작한다.

14일 직장운동경기부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제주자치도체육회와 제주·서귀포시체육회에 따르면 올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운영을 위한 재계약과 신규 선수 영입 등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전국체전에서 제주선수단이 획득한 메달의 30% 안팎을 따내는 제주체육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직장운동경기부가 따낸 메달은 제주자치도 17개, 제주

시청 5개, 서귀포시청 9개 등 31개로 전체 메달 84개의 37%에 달한다. 제주자치도체육회는 안방에서 열리는 올해 전국체전에서도 종합 10위 진입에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도와 씨름 등 8개 종목으로 가장 많은 선수단을 꾸리고 있는 제주자치도청은 장사타이틀을 보유한 씨름 황찬섭이 이적했고 제주출신으로 지난해 레슬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에 오른 바 있는 이민호와 전국체전 은메달을 따낸 이세현을 영입했다. 수영 다이빙은 군복무를 마친 김영남이 복귀하고 기존 김영호와 김영택도 재계약하면서 전국 최상위 전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향으로 복귀한 씨름 이호상. 한라일보DB

씨름은 남녕고 시절인 2023년 전국체전에서 제주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물했던 이호상이 정읍시청에서 고향으로 복귀하면서 전력 상승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역도는 문정선과 손영희를 다시 붙잡는 데 성공했다.

이밖에 유도에선 남녕고 출신 이본이 용인대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복귀했고 태권도는 작년 전국체전 금메달 리스트로 남녕고 출신 김효혁을 영입했다.

육상과 수영, 소프트테니스를 운영 중인 제주시청은 국가대표선발전 1위에 오른 안세현(접영)과 홍정화(개인혼영·접영), 육상 경보 김민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서귀포시청은 원반던지기 금메달 리스트인 김일현을 신규로 계약했지만 육상 공민정은 다른 팀으로 이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 수영 간판선수로 활약하는 이호준(제주시청)과 이주호(서귀포시청)는 그대로 남아 있어 올해 전국체전에서 다메달 획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그라운드. N 스토브리그’ 제주서 열전

겨울 시즌 유소년 축구 제전
14일 개막… 3년 연속 제주서
해외팀 확대 등 규모 더 커져

겨울철 유소년 축구의 제전인 ‘그라운드. N 스토브리그 in 제주’가 3년 연속 제주에서 개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넥슨, 제주 SK FC가 공동 운영하는 ‘그라운드. N 스토브리그’는 올해로 5회째로 14일부터 25일까지 제주대 운동장 등 도내 축구장에서 진행된다.

제주SK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2024년부터 ‘그라운드. N 스토브리그 in 제주’라는 타이틀 아래 올해까지 제주에서 3년 연속 열리고 있다.

올해는 프로축구연맹 산하 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양한 팀(일반 엘리트팀+여자부)이 참여한다. 참가팀이 기존 12개팀(2022~2025)에서 15개팀으로 늘었고 해외팀도 2025년 3개팀에서 5개팀으로 확대됐다.

남자부는 제주SK FC, 포항 스틸러스, 김포FC, 수원FC, 일산 아리

FC 등 국내 5개팀과 오이타 트리니타(일본), 빅세일 오키나와 FC(일본), 춘부리 FC(태국), PVF(베트남), 다렌 토네이도(중국) 등 해외 5개팀이 참여한다.

새롭게 신설된 여자부에는 제주서중, 경기 단월중, 전남 광영중, 대전 한밭여중에 제주여상이 참가한다. 제주여상은 고등부이지만 전체 선수단이 12명에 불과한 신생팀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참가팀과 연습 경기를 치른다.

경기 수도 기존 30경기에서 42경기로 12경기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이범영, 신형민, 송진형, 임상협 등 포지션별 유명 축구 선수들이 직접 지도하는 원 포인트 레슨 ‘레전드 클래스’와 유소년 선수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강의 및 휴식 프로그램 ‘런케이션’을 진행한다. 오는 18일에는 제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다양한 축구 이벤트를 진행하는 축제 ‘그라운드.N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위영석기자



이민성호 완패… “전술적 미스” 이민성호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에서 우즈베키스탄에 후반에만 두 골을 얻어맞고 0-2로 졌으나 8강에는 진출했다. 이민성 감독은 “우리가 하려고 한 플레이를 전혀 못 했다”며 “내가 전술적으로 미스를 한 것 같다. 선수들도 베스트 멤버를 짜는 상황에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국체전 과학적 지원 체계 구축 본격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스포츠과학센터가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10위’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스포츠과학센터는 지원 중점 종목을 우선 선별하고 팀과 선수별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축적된 체력측정 데이터와 개인별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운동심리,

역학, 생리학 등 각 스포츠과학 분야를 연계한 통합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연구원에게 책임 담당 종목을 지정해 선수들의 체력 상태와 분야별 지원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이밖에 부상 예방과 컨디션닝 지원을 위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제주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경기장마다 마사지와 테이핑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영석기자

제주SK 김준하·최병욱과 재계약 체결

제주SK FC는 유스 출신 듀오 김준하와 최병욱과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구단 유스와 숭실대 입학 동기 출신이자 동갑내기 절친으로 2025시즌 제주SK의 핵심적인 U-22 출전 카드로 맹활약했다.

김준하는 K리그1 31경기에 출전해 3골 1도움 베스트11 선정 2회의 맹활약을 펼쳤다.

최병욱은 K리그1 28경기에 출전해 1도움을 기록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김준하와 최병욱은 모두 구단 유스팀과 숭실대에서 ‘게임 체인저’로 활약했을 정도로 스피드, 드리블, 슈팅, 활동량 등 개인 기량이 뛰어나 프로레벨에서는 힘과 세기를 더하면서 더욱 완성형 선수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다. 위영석기자

맨유 임시사령탑에 ‘팀 레전드’ 마이클 캐릭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최근 경질한 후벵 아모링 감독의 빈 자리를 마이클 캐릭 전 미들즈브러 감독으로 채웠다.

맨유는 14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캐릭 감독을 2025-2026 시즌이 끝날 때까지 1군 팀의 사령탑으로 선임했다”며 “캐릭 감독은 스티브 홀랜드, 조너선 우드게이트, 트레이비스 비니언, 조니 에번스, 크레이그 모슨 등 코치진의 도움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앞서 맨유는 지난 5일 아모링 감독을 전격 경질한 뒤 캐릭 감독을 포함해 맨유를 지휘했던 올레 군나르 솔셰르 전 감독, 윌트 판 니스텔로이 전 레스터 시티 감독 등을 임시 사령탑의 후보군으로 놓고 저울질했다.

맨유는 고민 끝에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팀을 지휘할 임시 사령탑으로 캐릭 감독을 낙점했다.

캐릭 감독은 맨유에서 12시즌 동안



마이클 캐릭 임시 감독. 맨유 홈페이지 캡처

안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수비수로 공식전 464경기(24골)를 소화한 레전드다.

맨유를 떠난 캐릭 감독은 2022년 10월부터 미들즈브러(2부)의 지휘봉을 잡고 136경기(63승 24무 49패)를 이끌다가 지난해 6월 결별했고 이번에 맨유 사령탑을 맡아 현장에 복귀하게 됐다.

캐릭 감독은 “맨유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 이제 나의 모든 초점은 선수들이 맨유가 요구하는 기준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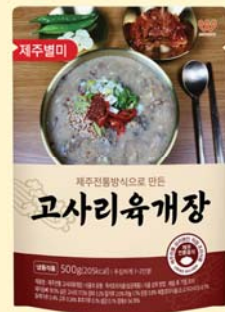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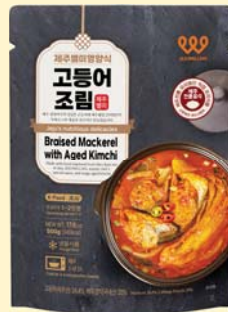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묵국



고사리 육개장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성계전복미역국



제주갈치순살비빔장



전복순살비빔장



소라순살비빔장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